

인문의 바다에서 만나는 출판인, 필자, 그리고 독자

주강현 |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 문화재전문위원

출판동네에 한마디!

책을 내려고 하면, 어느 출판사 사람들이나 대개 '아, 얼마나 팔릴까요'가 첫인사. 어떤 출판사와 필자가 잘 팔리길 거부할 리 있을까. 어려운 여건에 판매량부터 걱정하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출판계는 '결국은 죽는다!'. 너무 매정한 말일까.

어떤 필자에게도 판매량의 진폭은 있다. 내 자신 《우리문화의 수수께끼》가 20만권을 넘어섰다면, 1991년에 펴낸 《북한민속학사》는 지난 9년간 겨우 초판을 팔았다. 그러나 20만권짜리 책이 초판 넘긴 책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초판만 팔린 책이 20만권짜리 책보다 낫다고 건강부회하지도 않는다. 인문학 저술을 일생의 업으로 삼고 학문에 정진하는 나로서는 두 책 모두 필요한 과정이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별 저술이다.

어느 출판인이 참으로 한심한 말을 내게 던졌다. "그 프랑스 인류학자의 책은 찍을 때마다 많이 팔렸다면서요?" 천만에 말씀. 번역되는 외국인 학자의 책은 대표작 중에서도 '잘 나가던' 책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외국인 학자의 저술목록에도 이리저리한 학문적 편력과 단계가 있는 법. 양질의 필자를 출간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진정한 출판인을 언제쯤 만날 수 있으려나!

독자들에게 한마디!

우리 독자들은 '뷔페음식'을 즐긴다. 한권에 여러 내용이 적당한 수준과 양으로 담겨 적은 비용

으로 독서효율을 올릴 수 있는 책에 눈길을 준다. 전자물이나 양질의 총서보다는 그저 한권으로 간단히 '배우길' 희망한다. 출판인의 상업술에 놀아난다고만 보기에는, 한국 독자들이 오늘날까지 보여주는 '친박한 뷔페잔치' 선호도에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다. 독자대중이여, 뷔페음식을 그만 드시고 품격 있는 '마이크로 접근'으로 입맛을 바꿈이 어떠하리오. 뷔페에만 중독되면 정작 깊고도 진득한 입맛을 놓치는 법이고, 인문학의 진수는 결코 꽃피지 않을 것이다.

필자들에게도 한마디!

어차피 먹고 사는 길인데, 내용이야 어떻거나 펴내는 데만 의의가 있다고 강변한다면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책은 책다워야 하고, 시대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전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같은 인문학자로서는 할 말이 많다. 대중성을 살려 독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되, 그 대중성이 도대체 '전문성'에 뿌리두는가. 학문적 수준을 자랑하되, 그 책이 '학문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는 '끼리끼리 학문동네'의 고담준론은 아닌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한탕주의', 혹은 '모범 따라하기', '베끼기' 전문필자는 아닌가.

21세기 다원화시대에 출판문화도 다원화돼야 한다. 양질의 필자가, 양질의 출판사를 만나서, 양질의 독자에게 갈 수 있는 행복한 채널을 다양하게 늘려야 한다. 독자를 맞기 전에 독자들의 독서경향을 잘못 이끄는 출판계와 필자들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인문학의 위기를 타치면서도, 정작 인문학의 외길을 걷는 출판사가 거의 드문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직도 많은 출판인들이 인문학의 기반 없이도 일국의 출판문화가 일어설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진 것은 아닌가. 언제쯤 '수입학'이 아니라 우리 인문학을 의연하게 보듬어주고 일생을 필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출판사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영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